

2008년 하반기 WPO(WorldPublicOpinion.org) · EAI · 경향신문 공동 국제인식조사  
**EAI 여론브리핑 37호: 세계 기아문제와 선진국의 책임**

대표집필 : 곽소희 · 정한울

**제2차 발표**

20개국 여론조사 (엠바고 GMT 2008. 10. 15 21:01-한국시간 2008. 10. 16 05:00)

차수	한국발표	주제	비고
1차	9월 11일	9.11 테러의 배후에 대한 국제인식 비교	9 · 11 테러 7주기
2차	10월 16일	세계 기아문제와 선진국의 책임	세계 식량의 날 (10.15)

**조사개요**

2008년 두 번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국제여론조사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U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2008년 상반기에 진행한 국제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조사로서 국제현안 및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을 소개한다.

2008년 9월 11일  
 경향신문사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팀

**조사국가 : 20개국 (조사기간 2008. 7.15-9.9)**

미주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아시아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유럽/유라시아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중동	팔레스타인, 터키, 이집트, 요르단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연구팀**

연구팀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연구진 :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신영환(EAI 외교안보센터), 곽소희(EAI 연구원)  
 문의 : 정한울([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 02-2277-1683 내선 102, Fax: 02-2277-1684)

**한국 조사방법론**

조사일시 : 2008.8.28~29

조사대상 : 19세 이상 전국성인남녀

표 본 수 : 600명

표본추출 : 층화확률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pm 4.0\%$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 답 율 : 20.5%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부록1. 조사방법론****부록2. 국제여론조사 연구협력기관**

## 세계 식량의 날 기념 20개국 조사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맞아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책제도프로그램(PIPA)이 기획하고 세계 20개국이 참여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www.WorldPublicOpinion.org](http://www.WorldPublicOpinion.org))” 국제여론조사 네트워크는 나타난 세계 기아 및 빈곤 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을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과 경향신문이 조사 및 발표를 담당한다. 2008년 7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는 전체 20개국의 16,370명이 응했다. 오차범위는  $\pm 3\sim 4\%$ 다.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 1945년 설립된 유엔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1979년 유엔식량농업기구 창립일인 10월 16일을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로 정하고 매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세계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의 공동대응을 촉구해오고 있다. 2008년 세계 식량의 날은 “세계식량안보 : 기후변화와 바이오에너지의 도전(World Food Security: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Bioenergy)”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위키백과 참조. 2008. 10.13 검색]

### 세계인 “세계기아문제 해결에 선진국 나서라”

- 세계인 81% “선진국, 세계기아 해결에 책임 있다”

- 개도국 · 선진국 모두 세계빈곤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에 공감
- 한국(90%)은 세 번째로 책임 공감의식 높아
- 러시아와 팔레스타인자치구는 절반만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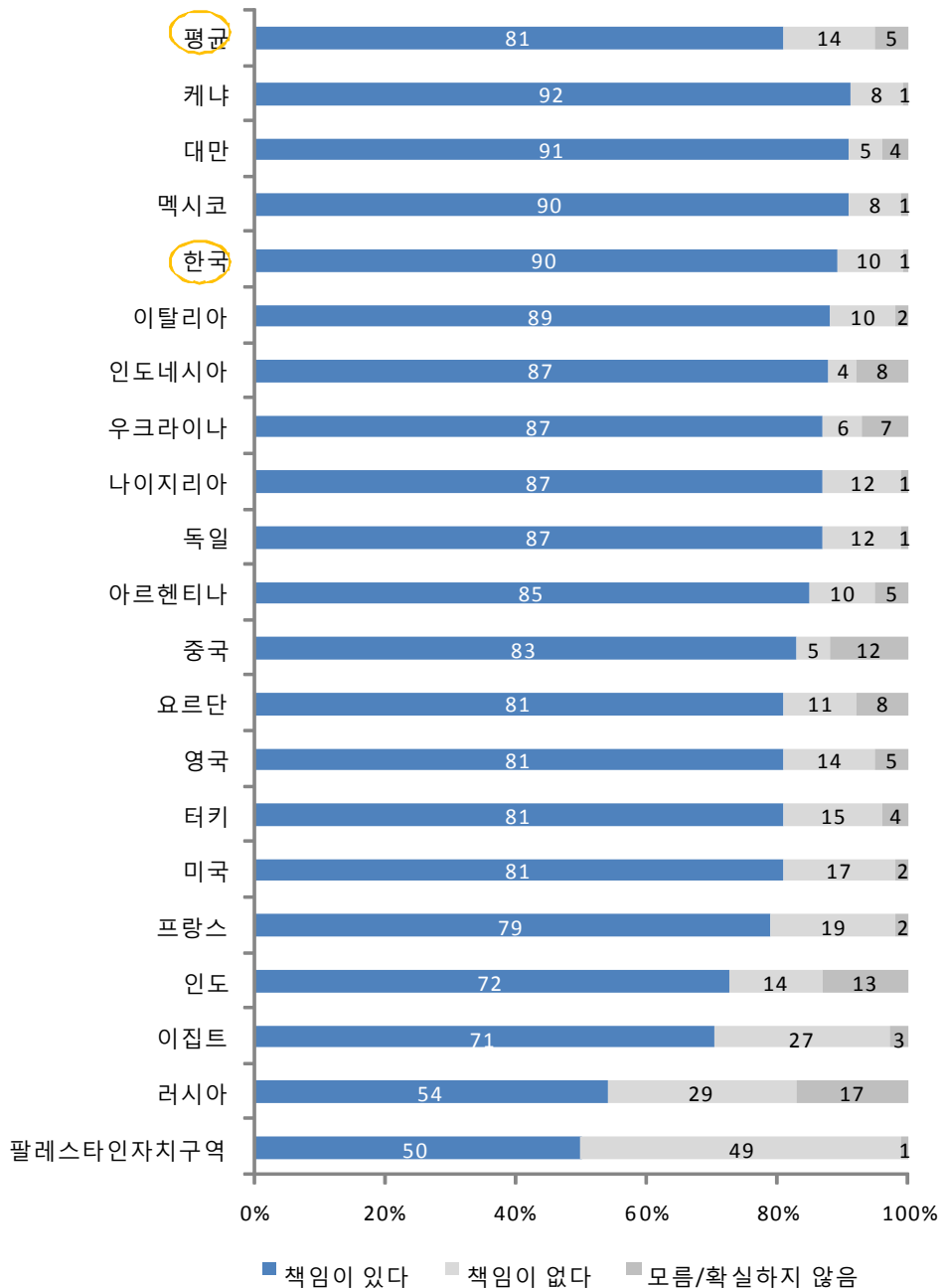
세계여론은 세계빈곤퇴치를 위해 선진국이 나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원조가 필요한 극빈국이나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 국민들 역시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극심한 빈곤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계 20개국 중 러시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국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 16,370명 중 81%가 선진국 책임론에 동의했다.

기아문제로 인한 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아프리카 국가들(케냐 92%, 나이지리아 87% 등)을 비롯해 신흥경제국으로 거듭나면서 절대빈곤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중국(83%)과 인도(72%) 등도 선진국 책임론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더욱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분담에 나서야 할 주요 선진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독일 87%, 영국 81%, 미국 81%, 프랑스 79% 등)가 세계기아퇴치를 위한 선진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54%)와 팔레스타인자치구(50%)에서는 공감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그림1 참조]

실제로 국제사회 및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기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해왔다. 2000년 유엔(UN)총회에서 전례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른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는 2015년까지 세계의 기아를 절반으로 줄이고 절대빈곤층을 감소시킬 것을 주요 의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국제개발기구(OECD)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기아 및 절대빈곤층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조비용을 각 회원국들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림1] 20개국의 세계빈곤문제에 대한 선진국 책임여부 인식 (%)



## 선진국 국민77% “세계 빈곤퇴치 위해 기꺼이 비용 부담할 것”

- 유엔 및 OECD의 빈곤감소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 추진 탄력 받아
  - OECD 회원 8개국, 책임 공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비용 지원할 의사 밝혀
- 한국인(80%)도 OECD가 정한 국민 1인당 분담금 이만 사천 원 “매해 부담할 것”

이번 조사에서는 OECD 회원국 8개국과 우선가입대상국인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빈곤감소를 위해 각 국에 할당된 분담금을 지불할 의사도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주요 선진국의 국민들은 국제사회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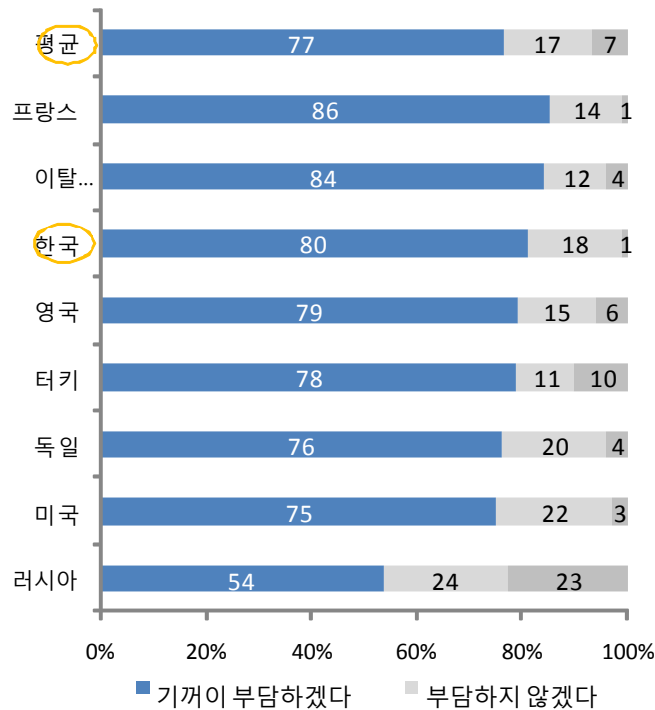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에 할당된 분담액(성인인구 기준)을 산정해보면 터키가 가장 적은 1인당 10달러가 책정되었고, 미국이 1인당 56달러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1인당 23달러가 책정되었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5년까지 기아 및 극심한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매년 총 390억 달러의 비용을 OECD 30개 회원국 및 우선가입 후보국인 러시아에 국내총생산(GDP)비율에 따라 분담한 후, 국가별 분담금을 다시 해당 국가 전체 성인수로 나눈 결과다(참조 [표1]).

[표1] OECD 8개국 원조 분담금액

	분담금(미화 달러)	분담금(자국 통화)
터키	\$10	12리라
러시아	\$11	257루블
한국	\$23	24,000원
이탈리아	\$39	25유로
독일	\$43	27유로
프랑스	\$45	29유로
영국	\$49	25파운드
미국	\$56	56달러

이렇게 할당된 액수를 기준으로 OECD 회원 8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OECD가 국가별로 할당한 분담금을 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국 모두 국민 대다수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답했다. 프랑스(86%), 이탈리아(84%), 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모든 선진국들(영국 79%, 독일 76%, 미국 75% 등)이 적극적으로 원조금을 지원할 의사를 밝혀, 세계기아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OECD 회원국의 기아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고려하면 기아 및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OECD 정식회원국은 아니지만 우선가입 후보국인 러시아의 경우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54%에 그쳐 OECD 가입에 따르는 국제적 책임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참조).

[그림2] OECD 8개국의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비용부담 의향 (%)



**한국, 세계기아문제 책임감 커. 소득악화 시 책임감 약화될 가능성도 커져**

- 한국인 90%, “세계 기아문제 해결에 선진국, 책임 느껴야”
- 한국인 80%, OECD1인당 분담금 23달러(조사당시 환율기준 2만4천원) “기꺼이 부담”
- 소득별, 교육수준별 편차 커.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경우 부정적 인식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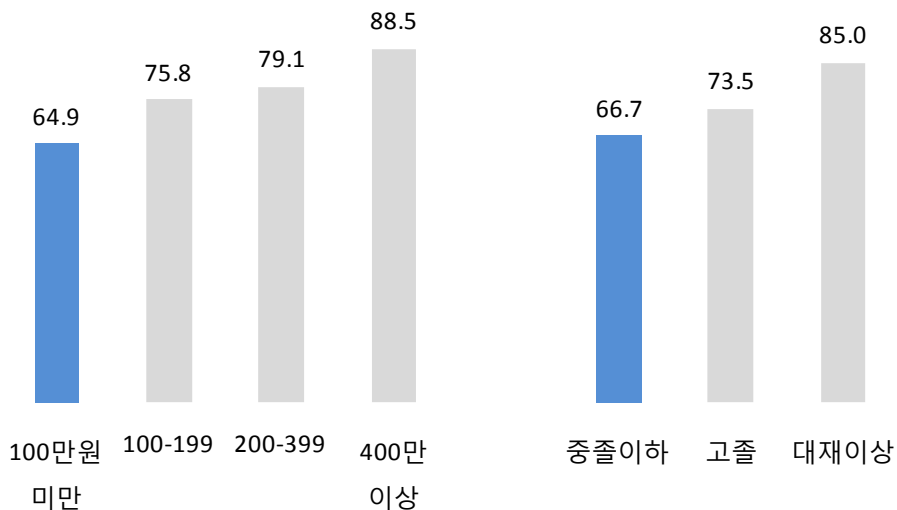
김영삼 정부 시기에 OECD에 가입한 이래 꾸준히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높여가고 있으며 최근 반기문 전 장관을 유엔사무총장으로 배출한 한국은 세계기아문제 해결에 높은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들이 나서야 한다는 책임 공감의식이 90%로 케냐, 대만에 이어 멕시코와 함께 세 번째로 높았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일환으로 한국 국민 한 사람에게 부과된 이만 사천 원을 매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이 역시 프랑스(86%), 이탈리아(8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다만 최근의 세계경제 침체와 혼란으로 한국경제 및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악화될 경우 국제기아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식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8월 조사 당시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인식편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매년 OECD 분담금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88.5%였던 반면, 300~399만원 층에서는 79.1%, 200~299만원 층에서는 75.8%로 낮아진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64.9%로 고소득층과 인식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 보더라도 대

재이상인 응답자의 85%가 적극적으로 분담의사를 표명한 반면, 고졸 학력 층에서는 73.5%, 중졸 학력 층에서는 66.7%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분담의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수준, 학력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용분담의 적극성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 경제상황 및 개인 소득수준이 악화되면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인의 국제적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그 충격으로 인해 각 국 정부 및 국민들은 국가경제 및 자신의 개인경제 상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산을 두드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국제사회에 확산될 경우 그 동안 유엔과 국제사회가 기울여온 기아 및 빈곤해결 노력이 한 풀 꺾이고 모처럼 국제사회에 형성된 기아 및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 말고는 의지할 곳 없는 절대 빈곤층, 절대 기아층에게 기아 및 빈곤의 고통 외에 절망이라는 이중고통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이 국제사회의 고통분담 의지와 선진국들의 책임의식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1] OECD 분담금 (매년 24000원) “기꺼이 분담 하겠다” (%)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

1945년 설립된 유엔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1979년 유엔식량농업기구 창립일인 10월 16일을 “세계 식량의 날(World Food Day)”로 정하고 매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세계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의 공동대응을 촉구해오고 있다. 2008년 세계 식량의 날은 “세계식량안보: 기후변화와 바이오에너지의 도전(World Food Security: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Bioenergy)”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위키백과 참조. 2008. 10.13 검색]

[부록1] 방법론 (출처: 월드퍼블릭오피니언 [www.WorldPublicOpinion.org](http://www.WorldPublicOpinion.org))

	Sample Size (unweighted)	MoE (%)	Field dates	Survey methodology	Type of sample
China	1011	3.2	Jul 26 - Aug 2, 2008	Telephone	National <sup>1</sup>
Egypt	600	4.0	Jul 21 - Aug 1, 2008	Face-to-face	Urban <sup>2</sup>
France	600	4.1	August 5 - 12, 2008	Telephone	National
Germany	1008	3.1	Jul 15 - Aug 12, 2008	Telephone	National
Great Britain	803	3.5	Jul 31 - Aug 8, 2008	Telephone	National
Indonesia	716	3.7	Jul 26 - Aug 18, 2008	Face-to-face	National <sup>3</sup>
Italy	552	4.3	July 16-30, 2008	Telephone	National
Jordan	583	4.1	August 12-15, 2008	Face-to-face	National
Kenya	1000	3.2	July 17-30, 2008	Face-to-face	National
Mexico	850	3.4	August 9-10, 2008	Telephone	National <sup>4</sup>
Nigeria	1000	3.2	August 9-18, 2008	Face-to-face	National <sup>5</sup>
Palestinian territories	638	4.0	August 1-7, 2008	Face-to-face	National <sup>6</sup>
Russia	3209	3.5	Jul 18-22 and Aug 15-20, 2008	Face-to-Face	National <sup>7</sup>
South Korea	600	4.1	August 28-29, 2008	Telephone	National
Taiwan	823	4.1	August 22-31, 2008	Telephone	National
Turkey	1023	3.1	Jul 28 - Aug 18, 2008	Face-to-face	National
Ukraine	1047	3.1	August 9-21, 2008	Face-to-face	National



1 In China, the survey was a probability sample of urban and rural households with land-line telephones in the provinces of Anhui, Hebei, Heilongjiang, Hubei, Jiangsu, Shanxi, Shanghai, Sichuan, and Yunnan—representing approximately 60 percent of the mainland Chinese population. The sample was 40 percent rural, 60 percent urban (rural households make up approximately 55 percent of the population).

2 In Egypt, the survey was executed in the urban areas of Cairo, Alexandria, Giza, and Subra. These four urbanized areas represent 75 percent of Egypt's urban population, which is 42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3 In Indonesia,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was conducted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and covering approximately 87 percent of Indonesia's population.

4 In Mexico, a random telephone sample of adults who had landline telephones was conducted in all 31 states and the Federal District. Telephone penetration in Mexico is 55 percent.

5 In Nigeria, the sample was developed by selecting six states, one per geographic region, based upon their size and representativeness. Within each state, sampling points were selected by means of a multi-stage random sample which disproportionately sampled urban areas. The final sample is 75 percent urban; Nigeria is approximately 50 percent urban.

6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a face-to-face national probability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population of the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the Gaza Strip.

7 In Russia, all items were half sampled; each item was answered by at least 800 respondents.

**[부록2] WPO 프로젝트 연구협력기관 (RESEARCH PARTNERS)**

Country	Research Center	Contact
China	<a href="#">Fudan Media and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 (FMORC), Fudan University</a>	Dr. Baohua Zhou
Egypt	Attitude Market Research	Mr. MohamedAlGendy +202 22711262
France	<a href="#">Efficiency3</a>	Mr. Samuel Lee +33 3 26 79 03 59
Germany	<a href="#">Ri*Questa GmbH</a>	Dr. Bernhard Rieder +49 (0)7641 934336
Great Britain	<a href="#">Chatham House (RoyalInstituteofInternationalAffairs)</a> / <a href="#">Facts International</a>	Dr. Robin Niblett +44 (0)20 7314 3667
Indonesia	<a href="#">Synovate</a>	Ms. Eva Yusuf (+62-21) 2525 608
Italy	<a href="#">Demoskopea</a>	Ms. ClaraMariotti +39 06 85.37.52.26
Jordan	<a href="#">Center for Strategic Studies, University of Jordan</a>	Dr. Fares Braizat (+962 6) 5300100
Kenya	<a href="#">Research Path Associates Limited</a>	Mr. Stephen Dimolo Ashers +254-20-2734770
Mexico	<a href="#">Reforma</a>	Dr. Alejandro Moreno +52 56 28 72 35
Nigeria	Market Trends Research International	Mr. Michael Umogun + 234-1 791 79 87
Palestinian territories	<a href="#">Palestinian Center for Public Opinion</a>	Dr. Nabil Kukali (+972-2) 2774846
Russia	<a href="#">LevadaCenter</a>	Ms. Ludmila Khakhulina (+7 095) 229-55-44
South Korea	<a href="#">East Asia Institute</a> Media Partner: Kyunghyang Sinmun	Mr. Han Wool Jeong +82 02-2277-1683
Taiwan	<a href="#">TVBS</a>	Mr. Wang Yeh-Ding +886-2-23568961
Turkey	<a href="#">ARI Foundation</a> / <a href="#">Infakto Research Workshop</a>	Mr. Yurter Ozcan +1 (804) 868 0123 Dr. Emre Erdogan +90 212 231 07 08
Ukraine	<a href="#">Kie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a>	Dr. Vladimir Illich Paniotto (+38) 044 537-3376 / (+38) 044 501-7403